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사순절 제3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9(통29). 성도여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누렇게 메마른 가지 끝에서 노랑고 하얀 꽃을 피우시는 주님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느리지만 조금씩 하늘을 향해 자신을 열어가는 꽃망울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용기를 가지고 응답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며 물려서기를 반복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바르고 선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게을리 하지 않는 부지런한 구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7:15 .....
♠ 교 독 문 .....	126. 사순절(3)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484(통53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성경봉독 .....	I. 눅3:10-15 .....
	II. 막11:15-19 .....
찬 양 .....	홍선희 집사
말 씬 .....	I. 봄의 전령 .....
	II. 상을 둘러쌌다 .....
거둠기도 .....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다함께

- 찬 송 ..... 516(통265). 옳은 길 따르라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미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며 자만하거나 나태하게 살지 마십시오. 욕망과 쉽게 타협하여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만들며 살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다들 그러고 산다’며 그릇된 평범함과 득이 되는 불법을 쉽게 용인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비틀어진 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음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백혜숙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동천 집사

<b>3월</b>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안홍숙 박경선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장기려 박사

사람들은 그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 돈은 없고 병든 몸만 가진 가난한 환자들은 누구 하나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서 그분만이 희망이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이토록 가련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처럼 손을 내밀어줄 것이라 믿었다.

인간의 생명도 돈 앞에서는 아무런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병 들고 불쌍한 인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분은 장기려였다.

그는 14 후퇴 때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 반평생을 살았다.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김일성 의대에서 교수를 했던 그는 1959년 국내 최초로 간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하는 등 당대 최고의 외과의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그는 의사로서 그 누구보다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함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 화려함 아래 언제나 존재하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등잔 밑을 살피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의사가 되기로 했을 때부터 의사 얼굴 한 번 못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했다. 그 결심 그대로 장기려는 평생 집 한 채 없이 부산복음병원 옥탑에서 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의 수술비를 자기 월급으로 다 대주고는 했다. 그로 인해 그의 월급 명세는 늘 적자였으며 병원 재정 역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 지원 결정을 원장인 장기려 혼자 내릴 수 없게 했다. 그러자 그는 환자들에게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몰래 도망가라며 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다.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에 등장하는 주인공 안빈 박사는 장기려를 모델로 삼은 인물이다. 작가는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 장기려를 닮은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요.”

그는 의사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명을 행하는 자라 여겼다. 그가 1956년 부산기독교의사회를 조직한 것도 의사들과 그런 소명을 함께 감당해가기 위해서였다. 이후 장기려는 1968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복음병원 분원에서 채규철, 조광제, 김서민,

김영환 등과 함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발족했는데, 이것이 한국 의료보험의 싹이 되었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 받자’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이 의료보험조합은 순수 민간단체에 의한 의료보험 기구로 영세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기독교의 자애정신에 기초했다.

장기려는 장로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무교회주의를 수용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고수했지만 다양한 신앙에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것은 도그마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순수성 때문이었다. 그는 후지이 다케시, 우찌무라 간조, 야나이하라 다데오 등이 저술한 서적을 탐독했고, <성서조선>을 통해 김교신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함석헌을 존경했다. 그는 함석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교회당 건물을 짓는 등 외형의 확장에만 몰입하는 것이 신앙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mammon주의(물신숭배)로 보았다. 한국 교회가 외적 성장에 골몰하고 있을 때인 1975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밀턴의 <낙원상실(실낙원)>을 읽어보면, mammon은 고층건물을 잘 짓고, 물질세계의 발전을 잘 일으키는 재능이 있는 마귀로 묘사되었다. 이것을 읽은 뒤부터는 고층건물을 보면 mammon의 힘을 연상하게 된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건물 예배당도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예술품은 될지언정 mammon의 재주인 듯한 느낌이 든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와 지위와 명예 그리고 사업의 번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살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었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mammon과 타협해서 산 결과로 된 것이 아니었던가?”

장기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집 한 채, 땅 한 평 가지지 않았고, 평생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살았다. 장기려는 “나도 늙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다소의 기쁨이기는 하나 죽었을 때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며 무소유의 삶을 이상으로 여기며, 간디를 닮으려 애썼다.

## 다석 유명모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주와 같이 세상을 이기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 나라에 살 수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길고 멀게 이루시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이를 주옵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먹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남의 짐만 되는 거짓 살림에서는 벗어나서 남의 힘이 될 수 있는 참삶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끄을림이 없이 다만 주를 따라 위로 솟아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사람이 서로 널리 생각할 수 있게 하옵시며,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주께서 하나이 되사 영삶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이 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참말 삶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권미숙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훈동 유경순 배근수 김금순  
 손성현 오자영 이봉목 조항범 오현정 조문규 진정숙 김성한 조영순  
 전월수 김재흥 최희영 이성운 정재수 이희자 양재성 임미심 송 샘

### 월정헌금:

권미정 권 순 윤정화 박준규 서지영 송의섭 이갑재 이성범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전영자 조순덕 임원민 임수연 이영란  
 정원석 김현영

###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윤석철 장혜숙 박정숙 유순봉 정희선 임승동 백혜숙  
 왕성한 강순배 이유일 김미희 권미숙 박창운 허정윤 유청번 무 명

### 생일감사헌금:

윤수진 박혜경 조항미

### 녹색꿈 헌금:

김주일 이소순 조윤경 조윤기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김 정 섭	노 봉 임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교 회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정 복 순	서 원 금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신 영 신	최 종 미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조 병 주	최 희 영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김 춘 려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강 순 배	오 복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김 필 순	구 성 실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박 찬 정	안 흥 숙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백 혜 숙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명 희	송 양 진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윤 정 화	이 봉 배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교 회	조 항 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하며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별로 모입니다.
3. **세례 입교 교육** :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과 입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월례 예수포럼이 16일(월) 오후 6시부터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전성은 선생님(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역임)이십니다.
5. **추도예배** : 고 박정오 목사님의 2주기 추도예배를 20일(금) 저녁 7시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6. **새벽기도**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다음 주 2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7. **신앙실천** : 일주일 중 한 끼를 금식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박병구 김기성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